

#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II)

##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 및 영향요인\*

A Study for the Enhancement of Korean Married Women's Quality of Life:  
The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and It's Influential Factors\*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정자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경연  
고신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김선희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정영숙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심혜숙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최원철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시간강사 문소정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san National Univ.  
*Prof. : Jung-Ja Kim*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Prof. : Kyong-Yeo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Kosin Univ. Assis.  
*Prof. : Seon-Hee Kim*

Dep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 Assoc.  
*Prof. : Young-Sook Chong*

Dep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Assoc. Prof. : Hae-Sook Sim*

Dept. of Biology, Pusan National Univ.  
*Prof. : Won-Chul Choi*

Dept. of Sociology, Dong-A Univ.  
*Prof. : Soon, Choi*

Women's Studies Center, Pusan National Univ.  
*Lecture : So-Jung Moon*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life quality(LQ) of Korean married women compared to Korean married men's LQ, examines personal factors' and hom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s to Korean married women's LQ via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ocial belongingness, positive emotion, self-esteem, and sense of internal control in causal model, and explores Korean married women's perceived important factors and perceived enhancement required factors in life.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941 Korean married women and their husbands who have one or more children in Pusan.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The overall and most sub dimensional LQ of Korean married women mark medium level and were lower than that of Korean married men's. Korean married women who is highly educated, keeps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ir husband, self-esteem, sense of internal control, social belongingness, and positive emotion, and possess high SES and much available resources shows higher LQ than those who doesn't. 2. The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husband and available resources hav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Korean married women's LQ. The psychological mediatory factors of these two variables' influences on women's LQ are such as social belongingness, positive emotion, self-esteem and sense of internal control. SES has direct influence only and the educational level has indirect influence via social belongingness only on Korean married women's LQ. All these factors explain 58% of Korean married women's LQ variance. 3. Korean married women rank family health, family reconciliation, husband's success, and children's achievement as the very important factors in life. They also rank husband's success, economic abundant, family reconciliation, family health, and their self-actualization as the very required factors for enhancing the given LQ.

## I. 서론

80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한 국사회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은 삶의 질 관련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으로 대변되고 있다. “개인 복지의 실체를 규정 짓는 생활영역들의 주관적 만족감”(채정숙, 조희금, 박충선, 정영숙, 1997, p.245)인 삶의 질은 개인적 행복 뿐 아니라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케 하는 지표이므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다.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의 총화로 산정되는 한 사회의 삶의 질은 사회의 기본적 핵심 구성단위인 개개 가정의 삶의 질에 의해 결정되며, 한 가정의 행복은 아내 및 어머니로서 가정생활 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부 즉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외선과 손현숙(1991)은 기혼여성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기혼여성 자신의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부부관계 및 자녀의 인성발 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

다고 경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삶의 질 증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기혼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3개년에 걸친 체계적 연구의 제 2차 연도 연구에 해당되며 본 2차 연도 연구의 필요성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80년대 들어 와 가정학 분야에서 제시되기 시작한 여성의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첫 번째 한계점으로 척도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고정자, 김갑숙, 1997; 김경숙, 이정우, 1993; 김경신, 1996; 김인숙, 김진호, 1996; 김태현, 유은희, 1987; 문숙재, 정은숙, 1985; 박미금, 1994; 서병숙, 1989; 손현숙, 1995; 윤복자, 윤정숙, 박영순, 김혜정, 김영주, 신인호, 이연정, 1994; 이정숙, 이정우, 1995; 임정빈, 고보선, 1995; 조옥희, 신효식, 박효임, 1991; 조미환, 임정빈, 1991; 조혜정,

임정빈, 1994; 채정숙, 조희금, 박충선, 정영숙, 1996; 최은숙, 김인숙, 1990; 최정혜, 황기아, 1987; 홍성희, 1996; 홍숙자, 1990) 연구의 핵심변인인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참조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타당하게 측정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혼여성들로부터 삶의 중요 영역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척도를 구성한 1차 연도 연구결과(김정자, 1997)는 본 2차 연도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 상당수의 선행연구는(고정자, 김갑숙, 1997; 김경숙, 이정우, 1993; 김인숙, 김진호, 1996; 문숙재, 정은숙, 1985; 문숙재, 홍성희, 1988; 문숙재, 차성란, 1994; 박경숙, 1993; 손현숙, 1995; 윤복자 등, 1994; 이정숙, 이정우, 1995; 임정빈, 고보선, 1995; 조옥희 등, 1991; 조미환, 임정빈, 1991; 조혜정, 임정빈, 1994; 최은숙, 김인숙, 1990; 최정혜, 황기아, 1987; 홍성희, 1996) 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를 집단내 비교에 의해서만 파악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실질적 삶의 질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주어진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집단과의 집단간 비교자료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에 따른 기혼여성 집단내 비교(within-group comparison) 뿐 아니라 기혼남성 집단과의 집단간 비교(between-group comparison)를 통해 2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는 한국 기혼여성 고유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비교집단으로 사용되는 기혼남성 집단은 연구대상이 되는 기혼여성의 남편에 해당되는 집단인데, 이들은 가정이라는 단위 속에서 부부로서 기혼여성 집단과 일상적 삶의 영역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삶의 질은 주관적 경험의 소산이므로 관찰 가능한 객관적 요인의 영향과 함께 객관적 요인의 영향을 매개하는 심리적 요인의 중재적 영향력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비슷하더라도 불구하고 각자 느끼는 삶의 질이 다른 이유는 개인의 경험을 중재하는 심리적 요인의 차이

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사실 개개인의 객관적 복지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주어진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현실적 방안은 심리적 중재요인의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일 것이다. 선행연구 중 심리적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검토한 것들이 있으나(고보선, 이영호, 1995; 장윤옥, 정서린, 1997; 장진경, 1994; 조미환, 임정빈, 1991; 지연경, 조병은, 1991; 최외선, 손현숙, 1991), 많은 경우 가정관리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거나(고보선, 이영호, 1995; 김경숙, 이정우, 1995; 김경숙, 1998; 박성연, 최혜경, 1985; 임정빈, 고보선, 1995) 심리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을 동일 선상에 두고 분석함으로써(고정자, 김갑숙, 1997; 김경숙, 이정우, 1993; 박미금, 1994) 심리적 요인의 중재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객관적 요인들을 외생변인으로,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중재한다고 지목되는 네 개의 심리적 요인들을 중재변인으로 설정한 인과모형 분석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이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어떻게 중재되는지에 대한 포괄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인과모형에서 외생변인인 객관적 요인은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 등 3개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용가능자원 및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등 3개의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내생변인인 심리적 요인은 자아존중감(최외선, 손현숙, 1991; Baumeister, 1989, 1991; Costa & McCrae, 1980), 내적통제감(고보선, 이영호, 1995; 장윤옥, 정서린, 1997; 조미환, 임정빈, 1991; Baumeister, 1989, 1991; Bruno, 1980), 긍정적 정서(장진경, 1994; Costa, & McCrae, 1980), 및 사회적 소속감(박성연, 최혜영, 1985; Argyle & Furnham, 1983) 등 네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인과모형의 개념적 바탕은 김경동(1980, p.470)이 제시한 “삶의 질 연구모형”이며, 개인적 요인 및 가정환경적 요인을 외생변인으로, 심리적 요인을 내생변인으로, 그리고 삶의 질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구체화한 본 연구의 인과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대부분은 주로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라 선정된 변인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기혼여성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 밀착된 정보를 얻게 해 주는 자유기술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기혼여성이 일상적 삶에서 지각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이 중요시하는 삶의 요인 및 향상을 요구하는 삶의 요인의 순위를 밝히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설정된 본 2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혼여성 집단내 비교 및 기혼남성과의 집단간 비교를 통해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선행연구 및 예비조사에 근거하여 도출된 인과모형의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요인의 영향 및 심리적 요인의 중재효과를 밝히고, 셋째, 기혼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시하는 요인 및 향상을 요구하는 요인의 순위를 밝힘으로써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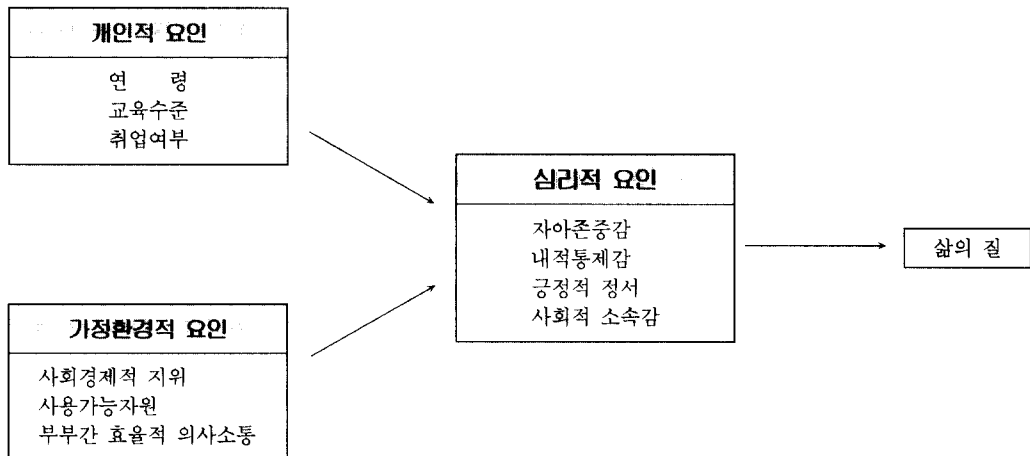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요인의 영향 및 심리적 요인의 중재 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한국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중요한 삶의 요인 및 향상을 요구하는 삶의 요인의 순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삶의 질의 개념 및 측정

인간이 살아가는 일 즉 삶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통합, 구성되는 현상이며 그 살아가는 일의 수준인 삶의 질 또한 포괄적 다면적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도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삶의 질의 지표가 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에 한정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므로 외적으로 관찰되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가 우선시되어야 한



<그림 1>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인과모형

다는 주장(신도철, 1981)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정의적 평가로서의 주관적 심리적 상태”(문숙재, 정은숙, 1985, p.151) 등 객관적 요인과 함께 주관적 만족감도 고려하는 정의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박미석, 1997, p.319)이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질의 지표로 주관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삶의 질을 정의하고 측정함에 있어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것 외에도 영역별평가 및 동기(motive)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삶의 영역별평가(Evaluation of life domains)는 총체적평가(Evaluation of life as a whole)로는 얻을 수 없는, 만족 또는 불만족한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신도철, 1981)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한편 동기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느끼는 행복 또는 만족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결핍동기 및 성장동기의 충족에 의해 결정된다. 결핍동기는 결핍상태가 야기한 신체적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게 하며 주로 불만족의 증감과 관련되고(Freud, 1934; Hull, 1943), 성장동기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게 하며 주로 만족감의 증감과 관련된다(Fromm, 1947; Maslow, 1962).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척도는, 이상에서 제시된 삶의 질 측정상의 고려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1차 연도 연구에서 개발한 것이다. 당 척도는, 질 높은 삶이란 “결핍동기가 해소되고 그리고 성장동기가 충족되는 삶”(김정자, 정영숙, 김경연, 심혜숙, 최원철, 최순, 김선희 및 문소정, 1997, p.5)이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기혼여성이 직접 열거한 삶의 영역별로 성장동기가 충족되고 결핍동기가 해소되는 정도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주관적 평정치를 측정토록 고안된 것이다.

## 2.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

본 연구의 인과모형에서 외생변인으로 설정된 객관적 요인들은 1980년대부터 발표된 50여 편의 국내 논문을 검토하여 추출된 6개의 변인이다. 선행연구에서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된 객관적 변인은 기혼여성의 연령(김경숙, 이정우, 1995; 박경숙, 1993; 신도철, 1981; 임정빈, 이종숙, 1989; 채정숙 외, 1997), 교육수준(고보선, 임정빈, 1992; 김경숙, 1998; 문숙재, 정은숙, 1985; 박미금, 1994; 신도철, 1981; 양명숙, 하경란, 1997; 임정빈, 이종숙, 1989; 임정빈, 고보선, 1995; 조미환, 임정빈, 1991; 진미정, 옥선화, 1994; 채정숙 외, 1997) 및 취업여부(김경숙, 이정우, 1995; 김경숙, 1998; 임정빈, 이종숙, 1989; 조미환, 임정빈, 1991; 조혜정, 임정빈, 1994) 등 3개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지위(고보선, 이영호, 1995; 고보선, 임정빈, 1992; 김인숙, 김진호, 1996; 문숙재, 정은숙, 1985; 문숙재, 차성란, 1994; 박경숙, 1993; 박미금, 1994; 손현숙, 1995; 신도철, 1981; 양명숙, 하경란, 1997; 이정수, 고경애, 1985; 임정빈, 이종숙, 1989; 조미환, 임정빈, 1991; 채정숙 외, 1997; 최희선, 손현숙, 1991; 한경미, 황덕순, 1990), 사용가능자원(고보선, 이영호, 1995; 고보선, 임정빈, 1992; 김경숙, 이정우, 1995; 김경숙, 1998; 임정빈, 고보선, 1995; 장윤옥, 정서린, 1997; 조혜정, 임정빈, 1994) 및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김경숙, 이정우, 1993; 김경숙, 1998; 김경신, 1996; 정은미, 김명자, 1996; 조혜정, 임정빈, 1994) 등 3개의 가정환경적 요인이었다. 이들 6개의 요인 외에 건강, 여가활동 등이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로 제시되었는데 이들 요인은 본 연구의 삶의 질 측정지표에 포함되었으므로 본 인과모형에서 제외하였다.

## 3. 객관적 요인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중재하는 심리적 요인들

본 연구의 인과모형에서, 객관적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

된 내생변인은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내적통제감,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소속감 등이며 이들 변인의 속성 및 중재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자기상 또는 자기평가”(Papalia & Diane, 1995, p.309)라고 정의되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므로 새롭게 주어지는 일에 자신감 있게 대응하고 변화에 쉽게 적응하며 꾸준히 목표추구를 할 뿐 아니라 비판도 잘 처리(Papalia & Diane, 1995)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구성요소인 생활만족도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김경신, 김오남, 1998; Costa & McCrae, 1980)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Emmons와 Diener(198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성 등 7개의 심리 특성 중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사회성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보고된 바 있다.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보다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요인의 영향을 중재하는 중재적 역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최외선과 손현숙(1991)의 연구는 그 중재적 경로를 밝히고 있다. 즉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건강, 교육수준 및 남편직업 만족도 등 객관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의 중재적 효과가 반복 검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내적통제감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또는 조건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지 여부 즉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갖고 있는데, 성공 또는 실패등의 결과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믿는 경우 내적통제감(internal locus of control)을 보유했다고 말해진다. 외적통제감의 소유자가 성공 및 실패를 운명이나 기회 등 외적 요인에 돌리며 자신을 상황적 희생자로 보는 반면(Weiten, 1992) 내적통제감의 소유자는 해야 할 일

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므로(Wade, 1996) 부적응을 일으킬 확률이 더 적다(Lefcourt, 1982). 경험적 연구들은 내적통제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장윤옥, 정서린, 1997) 자신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긴다고(조미환, 임정빈, 1991) 보고하고 있다. 지연경과 조병은(1991)은 내적통제감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로를 보고하고 있는데 내적통제감의 중재적 역할을 확인키 위해서는 반복적 증거가 요구된다.

### 3) 긍정적 정서

정서는 “외적 내적 사건에 반응하여 산출되는 생리적, 표현적 및 경험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 행동”(Bukatko & Daehler, 1995, p.400) 이라고 정의되는데 특히 긍정적 정서인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느끼고 더 쉽게 의사결정을 하며 타인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전체 인생을 훨씬 만족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다(Myers, 1995). 미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진경(1994)은, 개인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안정도에 매개되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밝히고 있다. 남성 보다 더 자주 정서표현 및 정서관련 대화를 하는 등(Fischer, 1993) 특히 여성에게 있어 정서는 중요한 삶의 구성요소이므로 기혼여성의 삶의 질을 파악하려면 그녀가 처한 객관적 조건이 긍정적 정서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중재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사회적 소속감

동기이론에 의하면 사람에게에는 타인과 결합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본질적 요구가 있다(Wayne, 1992). Baumeister와 Leary(1994)는 소속감을 추구하는 활동이 인간의 생존률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므로 이 소속에의 요구야 말로 대부분의 인간활동의 근본적 동기라고 주장한다. 박성연과 최혜경(1995)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 및 건강 등 객관적 조건이 사회적 관계에 매개되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입증하였

는데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그러한 중재적 영향이 입증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N=941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녀동거 기혼여성이며, 표본은 자녀동거 4개 생활주기에 (Olson, Russell, Sprenkle, 1983) 따른 할당추출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즉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정확립기, 빈 등지기 및 은퇴기를 제외한 자녀미취학기 200명, 자녀취학기 300명, 자녀중등교육기 300명, 자녀독립기 200명 등 모두 1000명을 표출하였으나 최종 분석 대상자 수는 질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사례를 제외한 총 941명이었다. 비교집단으로 사용된 기혼 남성집단으로는 표본 기혼여성의 남편집단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표본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 2. 변인의 측정

본 연구의 인과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인 중 개인적 요인인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는 한 문항의 질문으로 측정하였고 객관적 요인 중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가장의 교육수준, 직업 및 가정소득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그 외의 변인들은 타당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재구성한 기존척도 및 연구자들이 구성한 지표로 측정하였다. 기존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는 예비조사 결과를 문항분석하여 내적 일관성이 없는 문항, 변별력이 낮은 문항 및 문항타당도(Cramer's V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1) 삶의 질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1차 연도 연구에서 개발한 78문항형 척도(김정자 외, 1997)에 대하여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8요인 41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개의 응답

변인명	집단	N	%
가족생활주기	자녀미취학기	105	11.2
	자녀학동기	234	24.9
	자녀중등교육기	308	32.7
	자녀독립기	221	23.5
	무응답	73	7.8
	전체	941	100.0
기혼여성의 연령	20대	30	3.2
	30대	376	40.0
	40대	430	45.7
	50대	39	4.1
	무응답	66	7.0
	전체	941	100.0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34	3.6
	중등학교졸	157	16.7
	고등학교졸	452	48.0
	대학교졸이상	230	24.4
	무응답	68	7.2
	전체	941	100.0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취업	346	36.8
	비취업	515	54.7
	무응답	80	8.5
	전체	941	100.0
남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20	2.1
	중등학교졸	96	10.2
	고등학교졸	388	41.2
	대학교졸이상	361	38.3
	무응답	76	8.1
	전체	941	100.0
남편의 직업	무직	20	2.1
	단순노무직	34	3.6
	판매서비스직	69	7.3
	기능직	175	18.6
	소규모자영업	214	22.7
	사무직	187	19.9
	전문기술직	94	10.0
	고위전문직	58	6.2
	기타	7	0.7
	무응답	83	8.8
	전체	941	100.0
가정수입	50만원 이하	22	2.3
	51-100만원 이하	89	9.5
	101-150만원 이하	198	21.0
	151-200만원 이하	213	22.6
	201-250만원 이하	129	13.7
	251-300만원 이하	94	10.0
	301-400만원 이하	64	6.8
	401만원 이상	48	5.1
	무응답	84	8.9
	전체	941	100.0

범주를 지니며 척도점수범위가 41~20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사용가능자원

서병숙과 이현(1995)의 척도를 참조하여 인적자원 3개 문항(응답범주: 0~8) 및 비상자금 문항 1개(응답범주: 1~5)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점수범위는 4~29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가능자원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 3)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구성된 김수연(1998)의 5점 리커트식 부부의사소통 척도에 대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9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점수범위는 9~3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함을 의미한다.

## 4)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10문항형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8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점수범위는 8~3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5) 내적통제감

Levenson(1981)의 통제 의 소재 척도를 수정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정척도는 총 5문항의 일상생활 사건을 제시하여 그 원인을 자신의 행동결과로 보는 정도에 대해 0~3점을 배점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0~1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6) 긍정적 정서

5개 응답범주를 가진 9개의 기본정서에 대한 응답치 중 긍정적 정서(자신감, 만족감, 기쁨)점수에서 부정적 정서(분노, 좌절감, 수치심, 슬픔, 불안감, 죄책감)점수 $\times 0.5$ <sup>1)</sup>를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 7) 사회적 소속감

4점 리커트식 20문항으로 구성된 Rusell, Peplau,

및 Cutrona(1980)의 RULS(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에 대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14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점수범위는 14~5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소속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자료수집 절차

### 1) 예비조사

1차 예비조사는 한국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삶의 질 저해 요인 및 삶의 질 향상요인을 파악하여 본 조사에서 분석할 삶의 질 인과모형에서 중요한 외생변인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1997년 9월 2째 주에 임의 추출된 20대에서 50대까지의 기혼여성 350명에게 가정방문을 통해 개방형 질문지를 배부하고 2주만에 걸쳐 12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이 약 36%로 낮은 이유는 개방형 질문이 응답부담을 높여 응답기피 현상을 초래한 결과로 간주되었다.

2차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여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8년 1월12일부터 일주일 간 임의 추출된 20대에서 50대까지의 기혼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회수된 총 173사례의 응답지에 대하여 삶의 질 등 7개 변인의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할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 2) 본조사

본 조사는 1998년 2월 16일부터 3월5일까지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아내용 및 남편용이 든 질문지를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의 조사대상자 자녀 총 1000명에게 배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94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 부정적 정서 항목이 긍정적 정서 항목의 두배이므로 0.5를 곱했음



〈표 2〉 한국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삶의 질 총점 및 하위영역별 점수 차

	기혼여성(n=850) M(SD)	기혼남성(n=846) M(SD)	t값
<b>삶의 질 총점</b>	<b>147.79(20.50)</b>	<b>151.76(20.11)</b>	<b>-4.04***</b>
[하위영역]			
1. 배우자 및 가족지지영역	30.54(7.18)	32.14(6.40)	-5.00***
2. 자아성취영역	25.42(4.69)	26.51(4.67)	-4.93***
3. 자녀관련영역	18.20(3.27)	17.88(3.31)	2.10*
4. 배우자 불만영역	21.28(3.01)	21.49(2.99)	-1.52
5. 여가활동영역	10.12(3.21)	10.66(3.17)	-3.61***
6. 가족단란영역	19.40(3.35)	19.81(3.19)	-2.65**
7. 친척 및 시대(차가)관련영역	15.29(2.76)	16.17(2.72)	-6.78***
8. 친구관련영역	6.98(1.93)	6.83(1.89)	1.72

\*P<.05 \*\*P<.01 \*\*\*P<.001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요인 분석, 일원변량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

먼저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를 알기 위해 기혼 남성집단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은(평균 =147.8, 표준편차=20.50) 기혼남성(평균=151.8, 표준편차=20.11)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다. 삶의 질 측정치 범위가 96~204이고(중간점=150) 중앙값(median)이 148임을 감안할 때 평균적 기혼여성의 삶의 질은 중간정도라고 보겠다. 영역별 분석결과 배우자 불만영역 및 친구관련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자녀관련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기혼 여성의 삶의 질이 기혼남성에 비하여 낮았다. 한편 기혼여성 집단 내에서 삶의 질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연령 및

〈표 3〉 객관적 요인에 따른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변인(사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기혼여성의 연령(N=792)	20대	150.83	22.35	1.20 (N,S)
	30대	148.63	20.85	
	40대	147.38	20.32	
	50대	142.76	17.83	
기혼여성 취업여부(N=778)	취업	146.76	20.05	1.37 (N,S)
	비취업	148.49	20.82	
기혼여성의 교육수준(N=790)	초등학교졸	134.67a	15.84	8.56***
	중등학교졸	147.72bc	20.33	
	고등학교졸	146.24b	20.25	
	대학교이상졸	152.52c	20.63	
사회경제적 지위(N=741)	낮은집단	144.51	20.24	21.90***
	높은집단	151.50	19.86	
사용가능자원(N=923)	하집단	141.25	21.27	61.33***
	상집단	151.95	20.23	
부부간 개방적 의사소통(N=828)	하집단	140.59	18.00	257.49***
	상집단	161.69	17.89	

\*\*\*P<.001

• 교육수준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추후검증으로 Scheffé test가 적용되었다.

취업여부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교육수준(p<.001) 및 사회경제적 지위(p<.001)가 높은 기혼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

〈표 4〉 심리적 요인에 따른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변인(사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자아존중감 (N=838)	하집단	139.75	17.67	222.15***
	상집단	158.72	18.93	
내적통제감 (N=930)	하집단	142.90	21.96	23.95***
	상집단	150.03	22.32	
긍정적 정서 (N=841)	하집단	139.75	18.07	163.20***
	상집단	156.79	19.46	
사회적 소속감 (N=824)	하집단	137.58	16.86	265.16***
	상집단	157.81	18.69	

\*\*\*P<.001

다 삶의 질이 높았다. 또한 사용가능자원을 적게 보유한 기혼여성보다 많이 보유한 여성이(p<.001), 그리고 부부간 의사소통이 덜 효율적인 기혼여성보다(p<.001) 더 효율적인 여성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네 가지 심리적 요인 모두가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자신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긍정적 정서를 지니며,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기혼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2.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의 영향

인과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인과모형에 포함될 변인들 중 〈연구문제 1〉의 분석에서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이 없다고 밝혀진 연령 및 취업여부를 제외시킨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삶의 질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표 5〉와 같이 모두 p<.001 수준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문제 2〉의 목적에 따라 객관적 요인이 심리적 요인에 중재되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밝히기 위해 인과모형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그리고 〈표 6〉의 결과

〈표 5〉 삶의 질에 대한 각 독립변인의 독립적 영향력

N=941

변수	B	β	T값	R <sup>2</sup>
교육수준	3.769	.141	3.997***	.020***
사회경제적지위	1.366	.216	6.025***	.047***
사용가능자원	1.279	.292	8.881***	.085***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2.743	.615	22.423***	.378***
자아존중감	3.898	.510	17.142***	.260***
내적통제감	1.468	.225	6.724***	.051***
긍정적 정서	9.958	.485	16.082***	.236***
사회적소속감	2.454	.567	19.736***	.322***

\*\*\*P<.001

〈표 6〉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결과표

N=941

종속변인	독립변인	β계수	R <sup>2</sup>
자아존중감	교육수준	9.5238E-04	.119***
	사회경제적지위	.056	
	사용가능자원	.158***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255***	
내적통제감	교육수준	-.012	.034***
	사회경제적지위	-.045	
	사용가능자원	.032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178***	
긍정적 정서	교육수준	-.040	.126***
	사회경제적지위	.068	
	사용가능자원	.121***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293***	
사회적 소속감	교육수준	-.103**	.204***
	사회경제적지위	-.038	
	사용가능자원	.261***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307***	
삶의 질	교육수준	.016	.580***
	사회경제적 지위	.066*	
	사용가능자원	.051***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400***	
	자아존중감	.186***	
	내적통제감	.036	
	긍정적 정서	.155***	
사회적 소속감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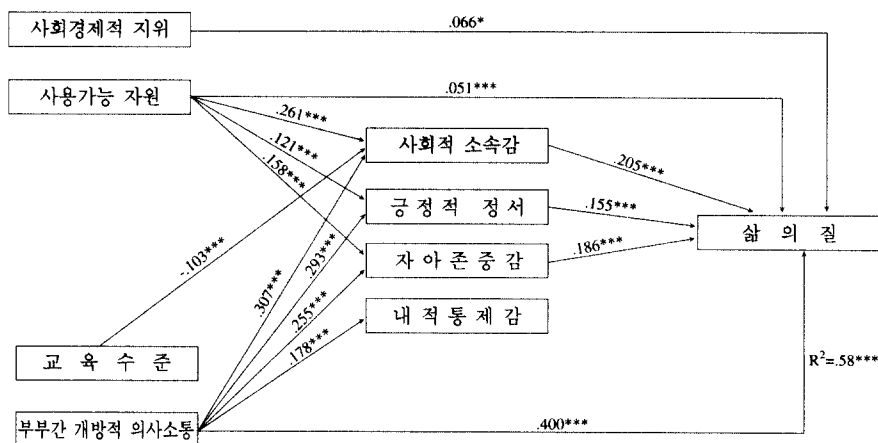
\*\*P<.01 \*\*\*P<.001

를 도해한 것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때 회귀분석은 연령 및 취업여부를 제외시켜 수정된 인과모형에 대해 실시되었다. <표 6> 및 <그림 2>를 참조하면, 외생변인 중 사회경제적지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 $\beta=.066, p<.05$ ) 어떠한 심리적 요인에도 매개되지 않았으며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사회적 소속감에 매개된( $\beta=-.103, p<.01$ ) 간접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 $\beta=.400, p<.001$ ) 뿐 아니라 4개의 심리적 요인들에 중재된 간접적 영향도 미쳤으며 사용가능자원 역시 직접영향( $\beta=.051, p<.001$ ) 및 간접영향을 미쳐 이들 변인이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 인임을 시사한다. 외생변인 및 내생변인 모두를 종 속변인에 회귀시킨 결과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beta=.400, p<.001$ ), 사회적소속감( $\beta=.205, p<.001$ ), 자 아존중감( $\beta=.186, p<.001$ ), 긍정적정서( $\beta=.155, p<.001$ ), 사회적경제적지위( $\beta=.066, p<.05$ ) 및 사용가능 자원( $\beta=.051, p<.001$ )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들 변인은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변량의 약 58% 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내생변인 중 내적통제감은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5>에서 독립적 영향력이 검

증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모든 변인이 함께 회귀됨 에 따라 나타난 상호통제 효과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3. 한국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중요한 삶의 요인 및 향상을 요구하는 삶의 요인의 순위

한국 기혼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지각 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개방 식 질문으로 얻은 1차 예비조사 결과 및 1차 연도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총 8개의 삶의 요인이 추 출되었다. 본 조사에서 기혼여성들에게 이들 8개의 요인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순위를 평정케 하고 각 요인의 비중을 알기 위하여 1, 2순위 지목빈도를 활 용하여 점수화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을 보면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요인점수가 약 400에서 800까지 분포된 데 비해 5순위부터 8순 위까지의 요인점수 합이(230) 4순위 요인점수의 5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혼여성 이 삶의 의미를 가족의 건강, 화목 및 남편과 자식 의 성공 등 가족 중심적 내지는 가부장적 가치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편의 성공(요인점수 =554)을 남편의 사랑(요인점수=83) 보다 7배 정도



<그림 2>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모형

중요시 한 결과는 기혼여성이 개인적 행복 보다 가족 전체의 안위에 비중을 둬으로써 가족지향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시하는 요인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는 요인이 반드시 일치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삶에서 향상되기를 원하는 요인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8개 삶의 요인에 대하여 향상을 원하는 순위대로 두 개의 요인만 지목케 하고 각 요인의 비중을 점수화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 의하면 한국 기혼여성이 현재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각한 요인으로는 남편의 성공, 경제적 여유, 가정화목, 가족

의 건강, 및 자아실현의 순서로 약 400에서 500까지 비슷한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자식의 성공 및 남편의 사랑에 대한 요구는 200 정도로 5순위까지의 요인의 약 반에 해당되는 비중이 부과된 데 비해 시댁관계에 대한 향상요구는 낮아(요인점수=27) 대부분의 기혼여성이 만족스런 시댁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표 7>과 <표 8>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한 <그림 3>을 보면 한국 기혼여성이 관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요인이 실제 향상되기를 바라는 요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관념과 욕구간의 차이가 큰 요인으로는 가족건강(중요시순위=1위, 향상요구순위=4위, 요인간 점수 차=388), 경제적 풍요(중요시순위=6위, 향상요구순위=2위, 요인간 점수 차=388) 및 자아실현(중요시순위=7위, 향상요구순위=4위, 요인간 점

<표 7> 한국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중요한 삶의 요인의 순위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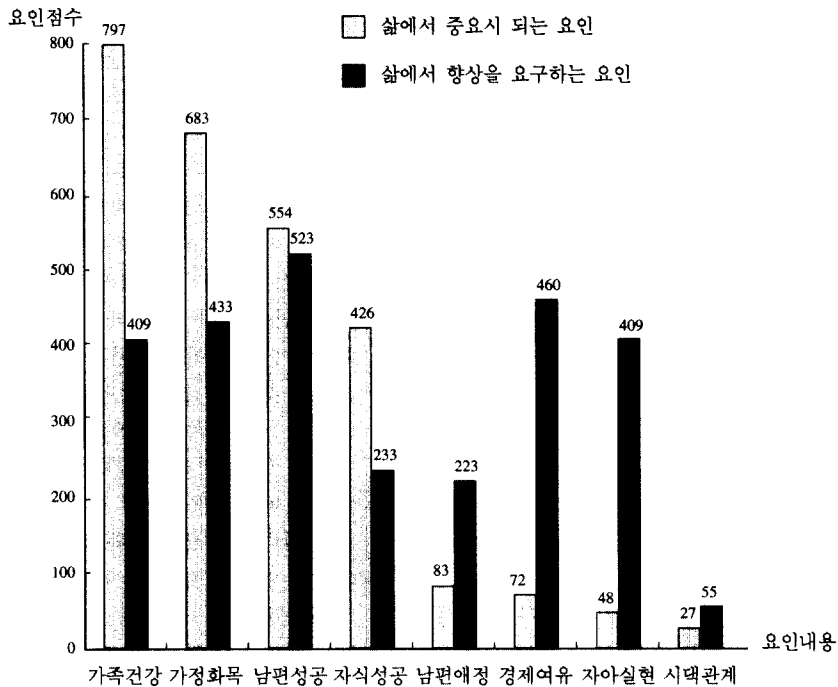
순위	요인내용	요인비중점수
제1위	나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것	$(312 \times 2) + 173 = 797$
제2위	가정이 화목한 것	$(216 \times 2) + 256 = 688$
제3위	남편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214 \times 2) + 126 = 554$
제4위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109 \times 2) + 208 = 426$
제5위	남편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것	$(17 \times 2) + 49 = 83$
제6위	돈이 넉넉한 것	$(18 \times 2) + 36 = 72$
제7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7 \times 2) + 34 = 48$
제8위	시댁과 관계가 원만한 것	$(2 \times 2) + 23 = 27$

요인비중점수 산출방법 : (1순위로 지목된 빈도 $\times$ 2) + (2순위로 지목된 빈도)

<표 8> 한국 기혼여성이 지각한 삶의 질 향상에 요구되는 요인의 순위 및 점수

순위	요인내용	요인비중점수
제1위	남편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217 \times 2) + 89 = 523$
제2위	돈이 넉넉한 것	$(159 \times 2) + 142 = 460$
제3위	가정이 화목한 것	$(158 \times 2) + 117 = 433$
제4위	나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것	$(145 \times 2) + 119 = 409$
제5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112 \times 2) + 185 = 409$
제6위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46 \times 2) + 141 = 233$
제7위	남편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것	$(67 \times 2) + 89 = 223$
제8위	시댁과 관계가 원만한 것	$(12 \times 2) + 31 = 55$

요인비중점수 산출방법 : (1순위로 지목된 빈도 $\times$ 2) + (2순위로 지목된 빈도)



<그림 3> 한국기혼 여성이 지각하는 삶의 중요 요인 및 향상 요구 요인

수 차=361)이 그리고 차이가 적은 요인으로서는 시댁 관계(중요시순위=8위, 향상요구순위=8위, 요인간 점수 차=28) 및 남편성공(중요시순위=3위, 향상요구순위=1위, 요인간 점수 차=31) 이 드러났다. 특히 시댁관계가 중요시순위 및 향상요구 순위에서 최하위로 지목되었을 뿐 아니라 비중도 매우 낮게 부여된 현상은 방위가족 보다 생식가족이 중시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시사하는 듯 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기혼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3개년에 걸친 연구의 제 2차 연도 연구에 해당된다. 본 2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후속 3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될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하여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파악, 문헌조사 및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삶의 질 인과모형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삶에서 중요한 요인 및 향상이 요구되는 요인 탐색 등 경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자녀동거 기혼여성 941명 및 그 남편 으로부터 질문지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요약된 연구결과,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기혼여성의 전반적 삶의 질은 중간정도의 수준이며 기혼남성에 비해 낮았다. 영역별로는 자녀관련 영역에서만 기혼남성 보다 높았고, 가족지지, 자아성취, 여가활동, 가족단란 및 친척관련 등의 영역에서 기혼남성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낮았다. 기혼여성 하위집단별로는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부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며 사용가능

자원을 많이 보유한 여성집단이 그렇지 않은 여성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았고 심리적 요인의 경우 자아존중감, 내적통제감, 및 사회적수용감이 높고 긍정적 정서를 보유한 여성집단이 그렇지 않은 여성집단 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둘째, 한국기혼여성이 처한 객관적 조건 중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및 사용가능자원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관적 조건인 심리적 요인에 중재된 간접적 영향도 미쳤고 교육수준은 사회적소속감에 매개된 간접영향만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접적 영향만을 미쳤다. 심리적 요인 중 내적통제감을 제외한 세 요인 즉 사회적소속감,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정서 모두 객관적 요인들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과모형에 포함된 8개 요인은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변량의 약 58%를 설명하였다.

셋째, 한국기혼여성은 가족건강, 가정화목, 남편성공, 및 자식성공이 삶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비중 높게 지각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비중 높게 지각한 삶의 요인은 남편성공, 경제적 여유, 가정화목, 가족건강, 및 자아실현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하면, 먼저 기혼여성의 삶의 질이 기혼남성에 비해 낮은 것은 선행연구(고보선과 임정빈, 1992; 박미금, 1994; 임정빈과 이종숙, 1989)와 일치하는 결과지만 두 집단 간 삶의 질의 차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즉 삶의 질 평균치가 150정도일 때 7점 정도(임정빈과 이종숙, 1989), 60정도일 때는 1점 정도(고보선과 임정빈, 1992)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 영역별 분석에서 자녀관련 영역에서만 기혼여성의 삶의 질이 기혼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의 주 책임자로 자녀와의 빈번한 상호교류를 통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경로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인 중 기혼여성의 연령 및 취업여부가 삶의 질과 무관하게 나타난 것은 이들 변인의 효과가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연령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삶의 질과 유관하다고 보고하지만 무관하다는 보고도 있고(김

경숙, 1997) 취업여부의 경우는 유관하다는 보고(김경숙, 이정우, 1993; 김경숙, 1998; 임정빈, 이종숙, 1989; 조미정, 임정빈, 1991) 와 무관하다는 보고(고보선, 임정빈, 1992; 김경숙, 1997; 박경숙, 1993; 박미금, 1994; 손현숙, 1995)가 혼재하고 있어 유망한 부수변인과의 상호작용적 효과가 검토될 때 더 정교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생변인 중 교육수준이 사회적 소속감에 매개되어 삶의 질에 간접영향만 미치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소속감이 높은 이유는 기혼여성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성취 보다 남편 또는 자녀의 성취에 가치를 부여할 경우 교육수준이 기혼여성의 삶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높은 기대를 하므로 만족감 내지 소속감이 감소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결과는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이 물질적 요인 보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객관적 삶의 조건들이 심리적 요인에 매개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이다. 즉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사회적소속감,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정서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용가능자원 보다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쳤고,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는 삶의 질에 미약한 직접영향만 미치는데 비해 사용가능자원은 직접영향과 함께 심리적 요인에 매개된 간접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량 보다 필요시 활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지각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삶의 질을 높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객관적 요인 중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은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강한 직접영향 외에 4개 심리적 요인에 매개된 간접영향도 커서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간 효율적 의사소통 자체가 기혼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자아존중감, 및 내적통제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정서를 보유하게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용가능자원이 풍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넉넉함에 기인한 심

리적여유가 사회적소속감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긍정적 정서를 보유하게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삶에서 관념과 욕구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결과이다. 이는 삶의 질 향상 방안이 기혼여성이 중요시하는 삶의 요인보다 실제 향상되기를 바라는 삶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 및 논의는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실질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물질적 조건 보다 심리적 요인에 중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근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부분간 효율적 의사소통이 강력한 직접영향 뿐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정서 등에 매개된 간접영향도 미친다는 결과는 기혼여성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그 구체적 교육방안 모색과 아울러 기혼여성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지역사회기관과 연대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할 방안을 구체화하는 삶의 질 향상 방안을 가시화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할 인적자원의 양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조사대상이 부산지역 기혼여성에 한정되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제작된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향상방안이 도출되는데 요구되는 현실에 밀착된 정보를 제시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1) 고보선·이영호(1995). 가정경제 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 2)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 도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3) 고정자·김갑숙(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1.
- 4) 김경동(1980). 사회발전개념의 지표화. *발전의 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5) 김경동(1980). 발전사회학의 복지사회학적 이론 - 자발적 복지사회의 이념과 실제. *발전의 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6) 김경숙·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29-46.
- 7) 김경숙·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 8) 김경숙(1998).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남편의 인지가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00-116.
- 9) 김경신(1996).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및 관련변인이 가족권의 만족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157-169.
- 10) 김수연(1998). 가족사정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11) 김인숙·김진호(1996).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능가유형의 구분. *대한가정학회지*, 34(6), 13-26.
- 12) 김정자·정영숙·김경연·심혜숙·최원철·최순·김선희·문소정(1997).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7(1), 1-45.
- 13) 김태현·유은희(1987). 노년기에서의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5(4), 113-122.
- 14) 문숙재·정은숙(1985).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49-167.
- 15) 문숙재·홍성희(1988).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53-169.
- 16) 문숙재·차성란(1994).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 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33-47.
- 17) 박경숙(199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6.
- 18)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1), 1-16.
- 19) 박성연·최혜경(199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 모형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23(1), 71-85.
- 20) 서병숙(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 133-148.
- 21) 서병숙·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22)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03-132.
- 23) 신도철(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정경문화, 5월호, 26-47.
- 24) 양명숙·하경란(1997). 모(시·친정)와의 동거여부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01-313.
- 25) 윤복자·윤정숙·박영순·김혜정·김영주·신인호·이연정(1994). 서울시 거주자의 생활 양식 측정도구 개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2), 225-263.
- 26) 이정수·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3(2), 67-90.
- 27) 이정숙·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이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4), 129-145.
- 28) 이정우·김명자·계선자·박미석(1997). 신세대 주부의 가정경영의식·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15-326.
- 29) 임정빈·고보선(1995). 도시신혼기 가계의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30) 임정빈·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17-132.
- 31) 장윤옥·정서린(1997). 가정자원정도지각과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141-153.
- 32) 장진경(1994). 알코올 중독가정 성인자녀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109-127.
- 33) 정은미·김명자(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47-64.
- 34) 조미환·임정빈(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과 가정생활만족, 대한가정학회지, 29(2), 169-184.
- 35) 조옥희·신효식·박옥임(1991). 홀로된 여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15-130.
- 36) 조혜정·임정빈(1994).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5), 15-28.
- 37)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통제성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38) 진미정·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1-13.
- 39) 채정숙·조희금·박충선·정영숙(1996).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대책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4(5), 13-27.
- 40) 채정숙·조희금·박충선·정영숙(1996).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경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4), 243-255.
- 41) 최외선·손현숙(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4), 99-114.
- 42) 최은숙·김인숙(1990).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87-100.



- 43) 최정혜 · 황기아(1987). 도시주부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과 창원지역 중심. *대한가정학회지*, 25(4), 123-139.
- 44) 한경미 ·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45)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1-84.
- 46) 홍숙자(1990). LA거주 한국이민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과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57-170.
- 47) Baumeister, R. F.(1989). The problem of life's meaning. In D. M. Buss, & N. Cantor Eds.), *Personality Psychology*. New York:Springer-Verlag, 138-148.
- 48) Baumeister, R. F.(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49) Bukatko, D. & Daehler, M. W.(1995). *Child Development*,(3rd.ed.,). Houghton Mifflin Company.
- 50) Costa, P. T., Jr., & McCrae, R.(1980). Influence of extro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51) Emmons, R. A., & Diener, E.(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 52) Fischer, M. b., Cornell, John., Villanueva, M., & Retzlaff, P. J.(1992). Clinical Validation of the Life Inventory: A Measure of Life Satisfaction for Use in Treatment Planning and Outcome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4, 92-101.
- 53) Lefcourt, H. M.(1982). *Locus of control: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2nd*, Hillsdale, N. J.: Erlbaum.
- 54) Levenson, H.(1981). Different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In H. M. Lefcourt(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Vol.1*. N. Y.: Academic Press, 15-63.
- 55) Maslow, A. H.(1962). *Toward a psychological of being*. Englewood Cliff, NJ.: Van Nostrand.
- 56) Miller, P. C., Lefcourt, H.M., Holmes, J.G., Ware, E.E., & Saleh, W. E.(1986). Marital locus of control and marit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61-169.
- 57) Miller, P. C., Lefcourt, H. M., & Ware, E. E.(1983).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iller Marital Locus of Control: Scale.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15, 266-279.
- 58) Myers, D. G.(1995). *Psychological Assessment 4*. Worth Pub.
- 59) Nowicki, S., Jr., & Duke, M.P.(1974). The locus of control scale for college as well as noncollege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36-137.
- 60) Olson, S. L, Bayles, K., & Bates, J.E.(1986).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ren's speech progres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first two years. *Merrill-Palmer Quarterly*, 32, 1-20.
- 61) Paulhus, D. L., & Christie, R.(1981). Spheres of control: An interactionist approach to assessment of perceived control. In H.M. Lefcourt(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161-188.
- 62)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63)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64) Ru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65) J. W. Santrock, (1996). *Child Development*. Brown & Benchmark PUB.
- 66) J. W. Santrock, (1996). *Adolescence*. Brown &

- Benchmark PUB.
- 67) C. Wade & C. Travis, (1996), *Psychological Assessment* 4,
- 68) W. Wayne, (1992), *Psychological Assessment* 2, 92-101, Worth Pub.